



혁명전통교양의 대결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5)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빛날 불멸의 업적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우리의 참관은 어느덧 사회주의위업옹호고수 시기적으로 이어졌다.
창간자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온 첫 오션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실천시키기 위한 사상대결을 제시하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데 대한 자부심이 전신되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장시의 현실은 걱정되어 넘쳐있었다.
1990년대가 시작되는 첫째의 1월 어느 날 일과가 자비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사회주의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할데 대한 함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며 승리는 영원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참다운 사회주의의가 키어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있습니 다라고 확신을 넘쳐 표시하시었다.



진국필사가속테회와 조선지도인쇄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을 통하여 당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총정신과 땅의 평도담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하고 완성하려는 드림없는 의지가 뚜렷이 표시되는데 대한 자료들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층 2호로 당면담과 조선문학상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보내신 친필, 사적품들과 사적자료들은 입심단결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가기 위한 근본담보라는 것을 옹언으로 실증해 주셨었다.

르는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웠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혁하고 류에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데 대하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것을 승호한 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어 대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 우리 혁명의 만년세보로 보관주시었다.

바로 이리만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시키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교양을 발표하시어 격변하는 경제속에서도 후조의 동료들이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성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선언하시었다.
혁사의 그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하신 교시의 구절구절이 참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며 승리는 영원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참다운 사회주의의가 키어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있습니 다라고 확신을 넘쳐 표시하시었다.
사회의주의는 지기면 승리하고 비하면 죽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이런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혁사의 반공주의의 배양의 끈을 밝히셨고 사회주의리념을 전철적 수호하시었다.

영결제로 주옥같은 시를 쓰시고 자신에서는 한평생 혁명을 하여오지 않은처럼 보람을 느껴본적이 없었고,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명도담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기쁨을 금치 못하신 어머니수령님.
진정 불멸할 충사는 위인관개인과 같은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축복과 확신이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머니수령님께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단열일을 가장 뜻깊고 경사로운 날로 기억하러는 온 나라 인민의 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2월 16일 50돌을 뜻있게 경축하도록 하시었다.

3년이 지난 주제 84(1995)년 에야 세상에 공개되었으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호한 혁명적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눈굽은 젖어내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뜨거운 경모심을 일고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시 경복을 금치 못하신 어머니수령님,
진정 불멸할 충사는 위인관개인과 같은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축복과 확신이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머니수령님께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단열일을 가장 뜻깊고 경사로운 날로 기억하러는 온 나라 인민의 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2월 16일 50돌을 뜻있게 경축하도록 하시었다.

합을 끊임없이 늘어나감에 대한 괴염을 제시하시는 영상사진본원과 주제 81(1992)년 9월 함경북도당위원회 전현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시는 영상사진본원, 위대한 장군님께서시 사적본원들을 헌치지도하시는 영상사진본원(3)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의 헌정성에 대하여서도 주체적으로 재입해주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십시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이기에 위대한 당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철의 대오가 무성할 줄을 이룬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심장은 세차게 울렷었다.

항하였다.
신화적인 인물로만 알려졌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며 영양을 수도로 하는 옛 국가를 세운 시조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의 결과였다.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왕과 고구려조 왕건왕을 훌륭히 계승한 태조대왕을 우리 후세대에게 빛을 뿌림수 있게 되었으면 민족사의 어름속에 영영 자취를 간직했던 왕건의 옥새와 왕건가문목구 수백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것이다.
장사는 우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돌을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할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벽면에 이르렀다.

정명 돌아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들을 모시고 혁명해왔는가 하는 벽한 긍지로 하여 가슴이 뭉클해졌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 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시는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성이 어려웠는 주체의 불후의 불후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빛내어나갈 결의를 다지며 참관자들은 다음호시로 향하였다.
글쓴사람 김광림

나루터가 전하는 이야기

지난 주에 방문했던 것이 한강나루터에서 있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고결한 인격성에 대하여 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혁명적 지니신 위대한 인격성이었다.》

하야 하였다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시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있던 로인 이 황학의 배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가왔다.
로인은 《우리 백성들은 아무 때 건너도 일없이 인민군대 어부부기 먼저 건너시우.》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그리는 로인에게 전했다고, 갑질이 바쁜 어부분들이 먼저 배에 오르라고 하시며 다스림을 하시었다.

나루터가 전하는 이야기는...
대중의 애독한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없다는것, 그 어떤 천재나 영웅도 이 세상사람들을 보살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그의 한 정경,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대중의 애독한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없다는것, 그 어떤 천재나 영웅도 이 세상사람들을 보살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그의 한 정경,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식하시기로 되어있던 때였다.

대중의 애독한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없다는것, 그 어떤 천재나 영웅도 이 세상사람들을 보살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그의 한 정경,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인민들이 인민군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시며 전진으로 이

다짐한 어머니처럼 사람들의 처지와 심정을 숙속들이 알아주시고 달랠줄을 하시어 더욱이 후면처럼 하여주시 수령님들은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이시었다.

우리 인민들은 어머니수령님의 진정을 성심으로 바라배워 사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생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어머니의 진정, 그것은 세상의 좋은것은 다 자식들에게 인 거주고살아하는 사랑만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사슴같이 나서는 희생성이었다.

인민들 속에서

우리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여러가지 농작물의 생산상태를 시험해보신던 포전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이 포전에서 서 벼, 강냉이, 콩, 수수를 비롯한 주요농작물들에 대한 새로운 비배방 방법을 연구하시고 새 품종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시어 여기서 얻어진 귀중한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자주 방상학을 조직하시었다.

이것이 새로운 비배방을 제해한 포전이라고 하시며 나에게 어서 설명하라고 이셨었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비배방에 따라 품종을 키워 밤에 옮겨심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남자가 하도 무리하니 위대한 수령님을 한시바에 그늘에 모시고자 설명을 빨리 끝내려고 서들었다.

포전에서 보고있는...
사실 그때로 말하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식하시기로 되어있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인민들이 인민군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시며 전진으로 이

대중의 애독한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없다는것, 그 어떤 천재나 영웅도 이 세상사람들을 보살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그의 한 정경,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인민들이 인민군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시며 전진으로 이

다짐한 어머니처럼 사람들의 처지와 심정을 숙속들이 알아주시고 달랠줄을 하시어 더욱이 후면처럼 하여주시 수령님들은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이시었다.
본격적인 진정으로 가슴아파하시 어머니수령님, 항상 명애가시어는 재래처럼 내리포이는 피아만도 마다하지 않고시 농민들과 함께 장병이방검을 때시며 현혹의 심정으로 대해 주신 우리 수령님.

이런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느질 입과 대공과의 관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써서 보고 싶어 일하는 인민이파 대공과 어떤 출동도 함께 하며 그 어떤 현실증명도 손잡고 해쳐나갈수 있으며 그 곁에서 우리 혁명의 천구기대본인 입심 단결의 신행을 더욱 억으로 쌓아나갈수 있다.
쓰신사람 김광림

가슴마다에 굳게 세기게 되었다.
이렇게 인민들에게 여러 시험포전들을 다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포전길의 소나무그늘이 들어 서시었다.
그늘밑이라고는 하여만 확률 들어 오는 열풍으로 허미 더위는 별로 가시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의 걸쳐 인민들과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여 인민화하기 위한 단결을 드르시었다.







